

# 바이든, 49개국 정상 불러 ‘서방이냐 러시아냐’ 줄세우기

### 아프리카 정상회의…미, ‘우크라이나 침공’ 러 따돌릴 외교전 친러성향 짙은 아프리카…미, 대러제재 반대부터 해결과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8년 만에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49개국 정상들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도자 5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20개국(G20) 가입 환영 입장을 밝혔고, 15일까지 이어지는 회의 기간에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550억 달러(약 7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에는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행사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최대 외교 목표가 된 마당에 러시아를 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결혼준중방안’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로 일부 미국과 에너지 부족 등의 타격을 입었음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러시아 경제에 부과된 가혹한 제재가 우크라이나 전의 외교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주민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옛 소련 시절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오랜 우호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중국으로부터 그 어

는 때보다 큰 관심을 받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천연자원의 공급처이자 자국 소비재를 판매할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물론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결정적인 시기가 될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각계각층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탄핵시위 격화’ 페루 한인사회 “긴장속 상황주시”

### 일부 교민 “언제든 문닫을 준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페루에서 한국 교민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곳과 멀지 않은 지역에 일터를 둔 일부 한인들은 휴식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 뒤지 않을까 잔뜩 우려하고 있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페드로 카스티요) 탄핵 사태 이후 우리 교민이 직접적으로 본 피해는 없다”며 고속도로 점거 등에 따른 사업체 물류 이송 차질도 아직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페루에는 1천654명(2021년 기준)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80% 정도는 수도 리마에 살고 있다.

교민들은 대체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거나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는데, 거주지나 직장 주변에서 격한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궁과 의회 등 센트로 주변에서 한국식품점이나 잡화류 도소매



정치적 무능으로 탄핵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페루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로 인해 파손된 페루의 상점. /로이터=연합뉴스

업을 하는 일부 한인은 진정될 기미 보이지 않는 시위 양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명환 전(前) 페루 한인회장은 “우리 교민들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최근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대

통령궁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긴급 상황 시 (잠시라도)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민은 고속도로 봉쇄 등으로 물류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7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자만 지역에도 일부 교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사관은 확인했다. /연합뉴스

## 젤렌스키 “러 공격에 우크라이나 환경 재앙”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공격으로 자국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에 이에 대응할 외교 리더십을 발휘

해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뉴질랜드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공격으로 “강줄기 수십

개가 오염됐고 탄광 수백 개가 침수됐으며 화학 업체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바다와 300만 헥타르(ha) 규모의 숲이 훼손됐다면서 “이는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괴된

생명이 되살릴 수 없는 것처럼 파괴된 자연 또한 재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환경 안보를 복구하려는 유엔(UN) 등 국제 사회의 노력을 뉴질랜드가 주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태국, 월드컵 도박 혐의…1만600명 체포

월드컵 도박이 성행하는 태국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도박범을 1만 명 넘게 체포했다.

14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1만644명을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도박판 운영자 90명과 도박에 참여한 9천여 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28명과 참여자 743명 등이다.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10명도 포함됐다.

태국상공회의소대학은 태국인들의 카타르 월드컵 도박 액수가 572억 바트(2조1천421억 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경찰 기술범죄단속국은 전날에도 카타르 월드컵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13개 장소를 급습, 5명을 체포하고 10억 바트(375억 원) 이상의 현금 등 자산을 압수했다.

태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과 경마 외에 도박은 불법이다. /연합뉴스

## 병아리 수컷 잔혹사 끝나나… “암탉배아만 생성하는 유전자 기술 개발”

이스라엘 연구진이 암탉 유전자를 편집해 수컷 배아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영국 B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텔아비브의 볼카니연구소 출신으로 이번 연구를 주도한 유발 시나몬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기술 개발로 매년 수십억 마리의 수컷 병아리가 도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금 산업의 혁명을 이룩하겠다는 시나몬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전자 편집한 ‘골다 암탉’이 동물 복지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며, 이 암탉이 낳은 달걀에는 유전자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골다 암탉이 낳은 달걀에 청광을 몇 시간 쬐이면 유전자 조작 DNA가 활성화돼 수컷 배아 생성을 억제하며, 이



태어난 직후 잔인하게 도살되는 수컷 병아리들.

과정에서 암탉 배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부화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달걀에 청광을 쬐인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먹던 달걀과 똑같은 달걀을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로기 <b>PFC-7900</b></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로기 <b>JP-870</b></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로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가기인중</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헬스케어 <b>SF-5100</b></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무직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헬스케어 <b>SF-5000</b></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무직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스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